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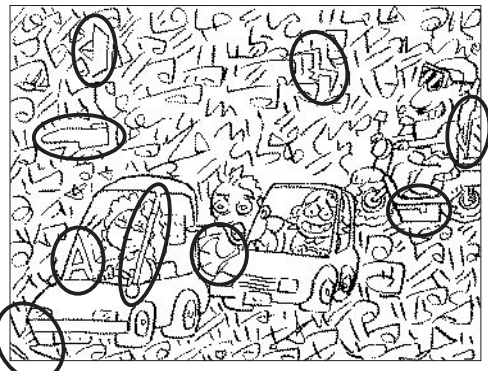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04>



찾아(보)세(요) 새집, 송사리, 프라이팬, 고추, 열대어, 다리아미, 셔플록, 유포, 바늘

국회의원과 미누라의 공통점

-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매일 노는 것 같다.
- ▲무슨 돈 쓸 일이 그렇게 많는지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뿐이다.
-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꼭 내 핑계를 댈다.



지난주 정답

A자, 갈매기, 성냥개비, 은행잎, 유포, 열대어, 종이배, 펜촉, 구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박경진(고흥군 도양읍) 김승곤(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퀴리부인 '라듐' 발견

100여년전인 지난 1898년 12월 26일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인 과학자 퀴리부인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퀴리부인에게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이 원소의 이름은 라듐이다.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을 딴 라듐은 우라늄보다 방사능 강도가 수만 배나 높은 원소다. 이 라듐의 발견은 20세기 핵물리학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방사선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의학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초당 수백억 번이 넘는 분열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새 원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사람들은 라듐을 '기적의 물질'로 부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획기적인 물질이자 각종 불치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에는 라듐 열풍이 퍼져나갔다. 병의 치료와 함께 여성들의 피부 미용을 위해 라듐광선이 등장하였고 비누·화장품에는 물론 식수에도 라듐을 넣은 제품이 등장했다.

매독이나 나병을 치료해주고 잠들지도 다시 앓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라듐의 가격은 치솟았고 장사꾼들에게는 새로운 투기거리가 됐다.

라듐을 인류의 희망으로 여기던 사람들은 곧 절망하게 됐다.

과학자들의 방사능에 의한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듐 열풍은 멈추지 않았고, 라듐이 뿜어내는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폐암과 함께 백혈병 등으로 서서히 사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피해가 속출했고 결국 지난 1931년 라듐의 시판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라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절망적



로 지켜보던 퀴리부인도 1934년에 방사선 과다 노출에 따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67세였다.

라듐연구로 퀴리부인은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1903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1911년에는 노벨화학상을 받는 등 과학자로서 영예를 누렸다.

장녀 이렌 졸리오 퀴리도 인공방사능의 연구에 대한 193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면서 한집안에서 노벨상을 3번이나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졸리오 퀴리도 평생을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다 백혈병으로 죽게 된다.

1900년대 환희와 좌절의 물질로 일컬어지는 라듐은 새로운 기술과 물질의 도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었다. 라듐은 현재 과학 연구의 진척으로 암치료와 석유 탐사 등에 이용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뉴스퀴즈

95. 미 시시주간 타임은 최근 '올해의 인물'로 러시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에 안정을 가져온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 리처드 스텐겔 타임 편집장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블라디미르 푸틴
- ② 알 고어
- ③ 힐러리 클린턴
- ④ 바락 오바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1월 17일 甲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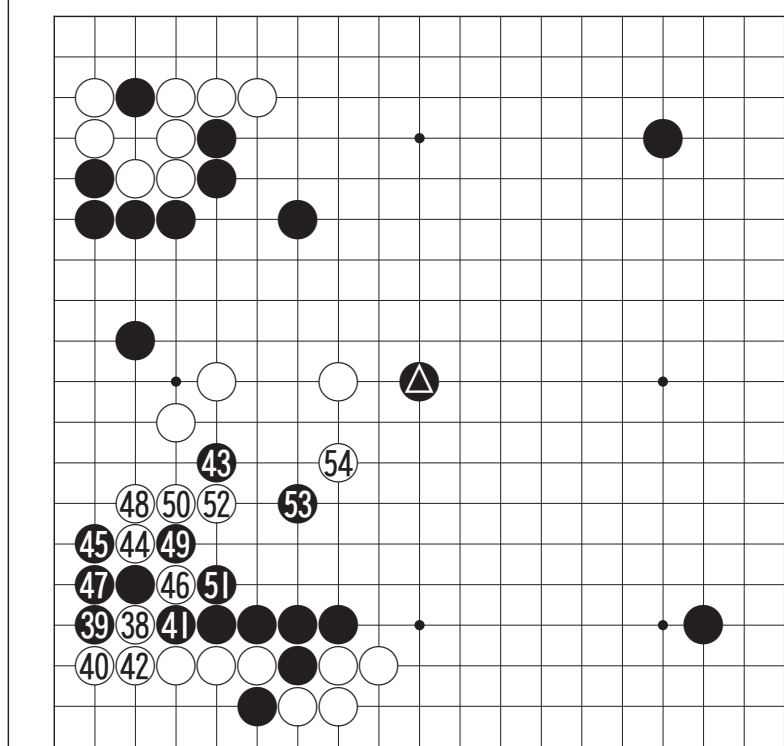
子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4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60년생 상황에 따라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 있다. 72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84년생 공술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11, 24
丑	37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49년생 동료들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61년생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 73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85년생 이성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라. 행운의 숫자: 17, 18
寅	38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0년생 인생은 맛을 아는 시기이니 지금부터고 행동하라. 62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74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07, 26
卯	39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5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3년생 신체적 불만이 나올 수 있다. 75년생 대단히 불리해질 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06, 25
辰	40년생 애사가 생길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2년생 불리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64년생 배인 덕이 없다 생각 말고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라. 76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9, 21
巳	41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3년생 부모 경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5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77년생 애인과 다툼이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 행운의 숫자: 03, 16
午	42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54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78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15, 27
未	43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55년생 불연이면 송사에 휘말린다. 67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9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19, 28
申	44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 56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8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80년생 소탐대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는다. 행운의 숫자: 02, 29
酉	45년생 약어도 수탈에 피리를 내어준다. 57년생 하나를 잃으면 만사를 얻는다. 69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하라. 81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중요 하리라. 행운의 숫자: 13, 30
戌	46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58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70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 하라. 82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12, 23
亥	47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 59년생 도박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1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83년생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 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04, 22

www.cafe.daum.net/sajj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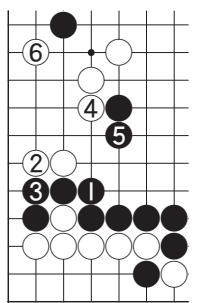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88회 전국체전

남녀 페어부 결승전



<참고도>

분다. 이것은 조금 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44에 붙이는 맥점이 있어 수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울식 기질은 이론에 밝고 실리에 민감하다. 반면 전라도

상반된 기질 4보(38~54)

白 이윤희 6단 이선아 6단 (서울) 黑 홍석의 7단 김지은 6단 (전남)

흑 ▲로 씌워 첫번째 대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다. 서울팀은 일단 백 38로 붙여 실리를 챙기고

흑 45로 아래에서 찢혀간 것이 강렬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있고 6까지면 보통이나 이것은 백이 쉽게 살아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것도 흑이 나쁠 것은 없으나 일단 공격에 올인하고 있는 전남팀이다. 그러나 46을 사석으로 하여 54까지 되어서는 백이 쉽게 수습이 된 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원성진, 비씨카드배 2연패 도전

원성진 9단이 신인들의 등용문인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2연패에 도전장을 내던졌다. 원성진은 지난 2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본선2회전에서 전영규 2단을 184수 끝에 백 불계승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제17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원성진은 이번 대회마저 제패하면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은 아직까지 2연패는 물론 2회 우승자도 나온 적이 없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은 우승상금 2500만원으로 신예기진 최고의 상금을 자랑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63>

It's weird. 야, 끔찍하다.

A : It's weird. This hotel room doesn't have towels.
B : Did you look in the closet?
A : I did, but I didn't see any.
B : We can call the hotel's customer service desk.

A : 정말 썰렁하네요. 이 호텔에는 타월이 없네요.
B : 옷장 안을 보셨나요?
A : 그럼요. 하지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B : 호텔 객실 서비스에 연락을 해야겠군요.

* weird : 오싹한, 끔찍한
* closet : 옷장, 벽장, 화장실
* customer service desk : 고객 서비스부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63>

お手数(てすう)ですが 수고스럽겠지만

A : お手数(てすう)ですが、明日(あした)モニングゴルフをお願いします。(なが)いします。
B : 何時(なんじ)ですか。
A : 6時(じ)です。
B : わかりました。

A : 수고스럽겠지만 내일 아침 모닝골 부탁합니다.
B : 몇 시예요?
A : 6시에요.
B : 알겠습니다

お手数(てすう)ですが : 이 표현은 주로 남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사용합니다.
すみませんが 바뀌 써도 무방합니다.
モニングゴルフ : 모닝골
~ですが : ~하지만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0>

那是谁的照片? 저것은 누구의 사진이야?

A : 那是谁的照片?
Nà shì shuí de zhào piàn?
나 스 쉰데 지 쉰오리엔?
B : 那是我女朋友的照片。
Nà shì wǒ nǚpéngyou de zhàopiàn.
나 스 쉰데 지 쉰오리엔?
A : 你的女朋友挺漂亮。
Nǐ de nǚpéngyou tǐng piàoliang.
네 데 녀 쉰오리엔 쉰오리엔?
B : 真的吗?
zhēn de ma?
진 데 마?
A : 那是谁的女朋友?
B : 那是谁的女朋友的照片?
A : 네 여자친구 중얼 해본다.
B : 정말?
照片 [zhàopiàn] 사진
瓶 [píng] 매수, 약주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 A)>
☎ 383-1605

한자 이야기 <680>

月滿則虧(월만즉휴)

달 월, 찰 만, 곧 즉, 이지러질 휴

월만즉휴(月滿則虧)는 달이 차면 곧 이지러진다는 뜻으로, 세상은 무엇이든지 성한 때가 있으면 곧 쇠퇴함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삼국지(三國志)의 범수·채택열전(范曄·蔡澤列傳)에서 유래하였다. 위나라 출신의 범수나 연나라 출신의 채택은 모두 고향에서 불우하게 살다가 진나라에 들어와 재상이 되어 출세한 인물들이다. 범수는 진나라 소왕을 도와 원교공책(遠交近攻策)을 세우고 재상이 되었다. 한편 채택은 범수에게 공을 세운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득하여 물러나게 한 후 스스로가 재상이 되었으나, 그도 '달도 차면 기운다(月滿則虧)'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평안한 말년을 보냈다.

한자문화 속에는 농경(農耕)생활의 지혜가 많이 녹아있다. 특히 해가 뜨고 지며, 달이 차고 기울며,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천지자연의 운행질서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법칙임을 알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여 왔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성소멸(生成消滅)한다는 자연의 엄격한 규율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능한 욕망(慾望)을 줄이면서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